

디자인과 예술 사이 2017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가 희미해진 시대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 디자인은 단지 심미적 감상이 아닌,
경험과 사용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창조적 활동이라는 점이 그렇다. 디자인이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지닌
도시 런던에서 지난 9월 펼쳐진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의
대표 설치와 전시를 소개한다. **글 강보라**

바다에서 건져낸 신소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각종 폐기물이 먹이사슬을 통해 다시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디자이너 **브로디 닐 Brodie Neill** (www.brodieniell.com)은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모아 만든 재료 **오션 테라초 Ocean Terrazzo**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환기시켰다. 대리석이나 석회암으로 만든 테라초만큼이나 견고하고 아름다운 이 신소재를 활용해 탄생한 테이블과 벤치는 포스터 파트너스가 참여한 부티크 호텔 ME 런던의 아트리에에 전시되었다. 비디오 매핑으로 연출한 영상이 벽을 타고 흐르며 장관을 연출했다.

“디자인과 업사이클 재료로 바다 오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테이블 위에 형상화한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은 가장 작지만 중대한 자연의 본질을 의미한다.”_디자이너 브로디 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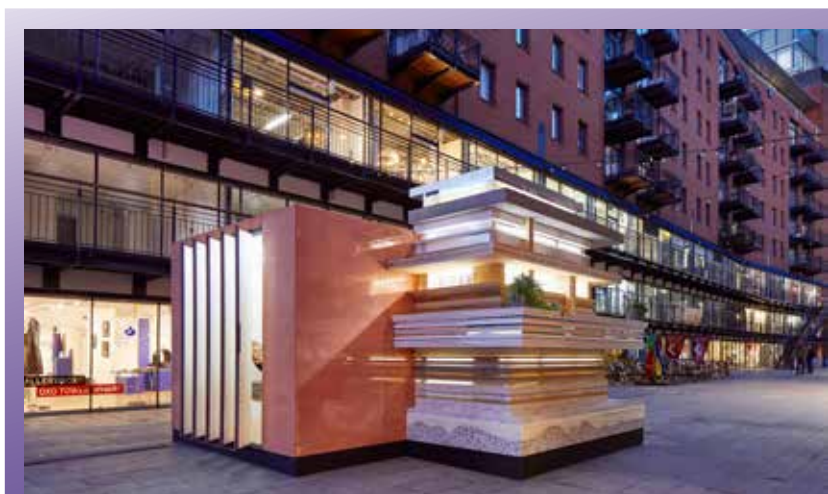


“무언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거대하고 말 그대로 분홍색과 노란색이 혼합된 패턴 하우스 말이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얼마든 들어와서 놀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_디자이너 카미유 왈랄라

유쾌하고 발랄한 왈랄라의 집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의 공식 전시 중 하나로 대형 야외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랜드마크 프로젝트'의 올해 주인공은 텍스타일 디자이너 **카미유 왈랄라 Camille Walala** (www.camillewalala.com)였다. (카미유 왈랄라가 했던 활동 언급) 그는 Memphis 그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건축가 아버지와 아프리카 예술을 사랑한 어머니를 떠올리며 컬러풀한 블록과 기하학적 패턴으로 구성된 벌룬을 디자인했다. 리버풀 스트리트역 근방의 익스체인지 스퀘어에 설치한 **빌라 왈랄라 Villa Walala**는 근방의 회색빛 빌딩 숲에서 일하는 런던ner들에게 휴식처가 되며 인기를 끌었다.



도시 생활자를 위한 오두막

미래의 도시 생활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온 **미니 리빙 (MINI, co. uk / LIVING)**은 건축가 **샘 제이콥 Sam Jacob**과 함께 **<도시 오두막 (Urban Cabin)>**이라는 전시를 펼쳤다. 옥소(영문!!!)라는 조미료 회사의 공장이었으나 현재는 전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옥소 타워의 야외에 설치된 작은 큐브 안에 거실과 주방, 서재, 휴식 공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가구 디자인과 배치를 실현했다. 주택 임대료가 늘 화두인 런던에서 어떻게 하면 생활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을 보여주었다.



놀이터가 된 호텔

부티크 호텔 시티즌M(www.citizenm.com)은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해 뉴욕, 파리에 이어 지난 해 런던에서 가장 젊고 자유로운 지역으로 꼽히는 소디치에 문을 열었다. 올해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을 기념해 나이지리아 이민 가족 출신인 디자이너 잉카 일로리 Yinka Ilori와 함께 놀이터를 만들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웃과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매개체로서 놀이터의 역할에 주목했다. 런던이 지닌 개방과 다문화상을 상징하듯 다채로운 색상과 패턴을 입힌 그의 놀이터는 다소 삭막한 분위기의 이스트 런던 거리에 생동감을 부여했다.

19인의 디자이너가 재해석한 캔버스 패브릭

2004년 덴마크의 텍스타일 브랜드 **크바드랏 Kvadrat**(kvadrat.dk)은 이탈리아 디자이너 줄리오 리돌포 Giulio Ridolfo와 함께 모직 소재의 패브릭 '캔버스'를 만들었고, 이후 이 패브릭은 크바드랏의 가장 인기 있는 직물이 됐다. 크바드랏은 디자이너 열아홉 명을 초대해 이 캔버스 패브릭을 마음대로 재해석해볼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물을 서머싯 하우스에서 열린 <디자인 프론티어스 Design Frontiers> 전시에서 공개했는데, 그중 네덜란드 듀오 디자이너 브크시 BCXSY의 컨베이어 벨트를 연상시키는 벤치, 뉴욕에서 활동하는 켈렌 & 카이 윌리엄스의 사자 카스튬 등이 돋보였다.



토드 분체의 크리스털

조명 디자이너 **토드 분체 Tord Boontje**는 **스와로브 스키**(www.swarovskigroup.com)와 15년째 협업하고 있다. <디자인 프론티어스> 전시에서 발표한 그의 새 크리스털 조명 컬렉션은 기술로 완성한 미학의 결정판을 보여주었다. 정밀 절단 기술을 사용해 만든 물방울 모양의 크리스털 조명등은 전구 없이 빛의 반사만으로 빛을 발하며 놀라움을 자아냈다. 안개가 자욱한 호숫가처럼 연출한 전시장에서 만난 그는 "정밀한 기술 덕에 처음으로 크리스털 조명등의 모양을 바꿀 수 있었으며, 액체의 유기적 모양과 빛의 굴절에서 영감을 받아 은은한 빛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올해는 리브룸 스튜디오의 10주년이자 열 번째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더욱 특별한 전시였다. 밀라노에 이어 화이트-블랙 에디션 연작을 완성할 수 있어서 기쁘다." _디자이너 리브룸

리브룸의 10년

소디치에 위치한 **리브룸 Lee Broom**(www.leebroom.com)의 소름은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기간 중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으로 항상 꼽힌다. 영국을 대표하는 가구 디자이너답게 매해 그 누구보다 특별하고 멋진 전시를 펼쳐내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로서 활동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그는 지난 4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는 자신의 대표작들을 화이트 에디션으로 만들어 온통 새하얀 회전목마에 올려놓아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랙 에디션 버전을 선보였다. <온 리플렉션 On Reflection> 전시에서 그는 정교한 대칭을 통해 벽 난로가 놓인 하나의 거실이 마치 거울에 반사된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두 개의 공간을 연출해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 공간에 가만히 서있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 역사적인 뮤지엄 안에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보려고,
그리고 항상 내 기억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호주의 파란 바다와
오렌지빛 석양을 담은 컬러조명을
설치했다.” _ 디자이너 플린 탈벗

빛으로 채운 뮤지엄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의 가장 주요한 행사로 손꼽히는 V&A(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전시는 완성도와 혁신적인 면에서 매우 뛰어나다. 영국 왕실의 국보급 소장품과 예술품을 방대하게 전시하는 뮤지엄 내에 다양한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친 설치 작업을 선보이는데, 올해는 호주 출신의 조명 디자이너 플린 탈벗 Flynn Talbot(www.flynnatalbot.com)의 <리플렉션 룸 Reflection Room>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는 35m 길이의 롱 양 끝에 파란색과 주황색 튜브 조명등을 설치하고 그 사이의 측벽에는 검은색의 반사 패널을 늘어놓아 방 전체를 빛의 그레데이션으로 채웠다. 단조로운 색의 조명등과 반사 패널만으로 물입의 경험을 선사한 이 전시는 페스티벌 기간 중 SNS에 가장 많은 사진이 올라오는 인기 전시로 등극하기도 했다.

런던에서 만난 '서울디자인페스티벌'

국내 최대 디자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서울디자인페스티벌(seoul.designfestival.co.kr)은 한국 디자이너 열네 팀과 2017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비익스, 크래프트 콤파인, 일레븐플러스, 공장, 김지윤, 라이프 클락, 임성목, 오이유, 소지, 소스문구, 스펙트럼, 박성현, 덴스, 땅벌메들리가 참여. 2016년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의 비주얼 디렉터 마음스튜디오의 이달우 디자이너가 전시 공간을 디렉팅했다. 이번 전시작품은 12월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국내 관객들에게 한 번 더 선보일 예정이다.



쾌락주의자의 은식기

엘킹턴 앤 코 Elkington and Co는 1824년부터 왕가 및 귀족의 은세공 제품을 만들어온 스텔링 실버 하우스다.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제너 Christopher Jenner(www.christopher-jenner.com)는 이 전통 브랜드의 모던한 변신을 위한 디자인 협업을 진행했다. '쾌락주의자(Epicurean)'로 이름 붙인 이 컬렉션은 찻주전자, 설탕 그릇, 샐러드 서버 등 스물네 가지 테이블 도구로 구성했으며, 푸드 스타일링 스튜디오 아페티Appeti와 함께 음식과 매치한 전시를 펼쳤다. 전통 은세공 기술로 완성한 극도로 모던하고 매끈한 디자인의 도구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향유를 주었다.



재스퍼와 하이메의 패션 디자인

동시대 디자이너 중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인 재스퍼 모리슨과 하이메 아몬이 유명 편집매장인 도버 스트리트 마켓과 협업해 남성 패션 레이블을 만들었다. 이름은 지지바바 Jijibaba(www.jijibaba.xyz). <디자인 프론티어스> 전시에서 공개한 첫 번째 컬렉션은 그동안 가구 디자인을 통해 펼쳐낸 이들의 특징을 그대로 담아내었다. '슈퍼노멀'을 주창하는 재스퍼의 재킷과 팬츠는 심플하면서도 단단해 보이고, 유쾌하고 장난스러운 하이메의 셔츠에는 쾌활한 패턴을 적용했다. 물론, 소재는 최고급을 고집했다.

더 프레임 X 사치 아트

거실 한복판에 자리 잡은 TV가 예술 작품의 프레임이 된다면? 여기에서 출발한 삼성(www.samsung.com)의 더 프레임 TV는 아트모드를 통해 TV를 보지 않을 때에 액자처럼 예술 작품을 담는 기능이 특징이다. 삼성은 런던 브릭레인 지역에 위치한 올드 트루먼 브루어리 Old Truman Brewery에 특별 전시관을 마련하고 더 프레임 팝업 스토어와 <더 프레임 X 사치 아트> 전시를 진행했다. 사치 갤러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미술품 갤러리 사치 아트 Saatchi Art가 보유한 작가의 작품을 더 프레임에 적용하며, TV가 예술 작품의 유통 플랫폼으로까지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